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연구: 인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박길순¹, 이은아^{2*}

¹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²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객원교수

A Study on the Cultural Adaptation Stress Experience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Focused on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Incheon

Gil-Soon Park¹, Eun-A Lee^{2*}

¹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Inche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cy

²Lecture, Dept. of Social Welfare, SungKy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에 관한 적응과정과 스트레스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에 대처하는 삶의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참여자는 인천시 ○○구에 소재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결혼생활 5년 이상된 여성 결혼이민자 5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Braun & Clarke의 주제 분석기법 6단계를 활용하여 중점주제 3개, 하위주제 13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서 경험한 문화차이(일상생활문화, 전통성, 가족관계)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험한 문화적응과정(어려움과 두려움-문화차이 이해-극복노력) 셋째,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험을 통한 문화적응이란 모국과 한국문화에서의 생활방식 차이를 알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려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 실천함으로써 한국의 생활방식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성공적인 문화적응을 위한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여성 결혼이민자, 문화적응, 스트레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질적연구

Abstract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research to investigate the adaptation process and stress experience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to Korean culture, and to explore life experiences and meanings to cope with them. Participants in the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targeting 5 female marriage immigrants with more than 5 years of marriage using the Healthy Families·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located in ○○-gu, Incheon City. Using the six steps of Braun & Clarke's topic analysis method, 3 main topics and 13 subtopics were derived. Research Results First, cultural differences experienced by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n life (daily life culture, tradition, family relations) Second, the cultural adaptation process experienced by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fficulties and fears-understanding cultural differences-efforts to overcom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cultural adapta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s that Korean lifestyle becomes natural and familiar by knowing the difference in lifestyle between their mother country and Korean culture, and finding and practicing the way they want to live with Korean peopl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 practical intervention plan for successful cultural adaptation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was presented.

Key Words : Female marriage immigrants, Cultural adaptation, Stress,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Qualitative Research

*Corresponding Author : Eun-A Lee(364379@hanmail.net)

Received October 15,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Revised November 5, 2020

Published November 28, 2020

1.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세계시장개방과 노동력의 구조 변화로 외국인 이주인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들어 국제결혼 가족 형성의 급증은 다문화사회로 진입과 동시에 우리 사회 내에 다양한 인구집단의 사회적 소수 계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1].

2015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143,087명이며, 그중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거주자는 149,165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4에 가까운 국제결혼이 모두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었다[2]. 2017년 우리나라 총인구 51,422,507명 중 외국인 주민 총계는 국적 취득자 169,535명, 국적미취득자 중 결혼이민자 160,653명, 외국인 근로자 495,792명, 외국인유학생 117,127명 등을 포함한 1,479,247명과 외국인 출생자녀 212,302명을 포함하여 1,861,084명으로 3.6%를 차지하였다[3].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4]. 우리나라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체로 연애 기간이 짧은데다 한국문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남성도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문화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로 결혼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형성 시작점부터 근본적으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환경에 직면해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문화가 다른 국가로 이주하면서 언어로부터 삶의 터전을 새롭게 형성하는데 개인적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문화적응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급증하는 국내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가정에 홀로 편입되어 문화적응 부담감이 높고, 다문화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하여 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5-6]. 이러한 스트레스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유지에 갈등 요인으로 영향[7]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선행연구결과 나타났다[8].

이렇듯 개인의 고유한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와 접촉하여 개인이 변화하는 과정인 심리적 문화적응은 높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포함한다[9]. 이러한 이주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하는 경우, 적응단계에 도달할 수 있으나 그

렇지 못한 경우 부적응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극복 여부는 결혼이민자 여성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10]. 이러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신체적 문제와 달리 정신건강의 문제로 인한 이슈의 인식과 그에 따른 전문적 서비스 이용 및 연계가 어려워 서비스 이용율이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사회적 개입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8].

현재 여성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정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수년간 한국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언어적·문화적 적응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양육과 학교 적응문제, 남편과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갈등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우리 사회에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험하는 것으로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여성 결혼이민자와 혼혈인 이주자에 대한 사회통합지원방안(2006년)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과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다. 이를 근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이주결혼 여성 쉼터, 다문화 업무 유관기관 등의 개소와 지원의 확대는 교육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에만 집중되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제도의 실천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등을 통하여 자신의 변화와 삶의 향상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성공적인 문화 적응을 위한 서비스 정책과 제도를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인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국제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 결혼이민자 등 매우 다양하다. ‘여성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는 2006년 4월 정부가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에서 채택한 용어로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해 온 여성을 ‘결혼이민자’라고 지칭하였다.

Table 1과 같이, 2018년 10월 기준 결혼이민자 체류자는 158,302명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다[3]. 여성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결혼을 계기로 새로운 사회에 편입하게 됨에 따라 경제적·사회문화적·심리적으로 적응을 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국제결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언어적 문제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 간에 겪는 갈등문제는 결혼이민자 여성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가정해체의 위기까지 이어진다[7].

Table 1. Status of marriage immigrants' stay by year (As of October 31, 2018)

Division	2013	2014	2015	2016	2017	17' 10	18' 10
①	150,865	150,994	151,608	152,374	155,457	154,755	158,302
②	1.6%	0.1%	0.2%	0.5%	2.0%	-	2.3%

① personnel

② Rate of increase or de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문화란 하나의 사회 내에서 언어와 의사를 소통하는 방식, 생활양식, 규범이나 규칙 등을 통칭하며, 둘 또는 그 이상의 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이 대면하고 접촉하면서 문화적, 심리적인 변화의 과정을 문화적응이라 정의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acclturation)은 사회구조와 제도, 문화적 관습상의 변화, 개인적 수준에서 인간행동의 여러 가지 측면이 변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문화적·심리적 변화는 몇 년, 몇 세대, 혹은 몇 세기 등 장기간에 걸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이주자들은 자신의 원문화와 정착사회의 중심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적응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9].

여성 결혼이민자는 ‘이주’와 ‘결혼’이라는 생활공간의 환경변화와 동시에 낮은 사회문화 적응 그리고 한국문화의 가족 구성원과의 결혼으로 일상적인 생활변화 등에서 다양한 적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남편의 사고방식, 성격 차이, 의사소통 장애, 생활 습관의 차이, 폭력과 학대, 시댁 식구들로부터의 무시와 참견, 경

제적 무능력, 전통적인 문화, 음식문화, 주거환경 등 전반적인 생활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던 익숙한 문화 대신 새로운 문화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문화충격이라 한다. 문화충격의 원인으로 언어충격과 일상생활의 변화, 관계들의 변화, 이해력 상실과 감정, 평가의 방향 상실, 신체적 활동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결과는 흥미 상실, 모국 생각, 불면증, 식욕부진, 집중력 결여 등의 증상과 의욕저하, 피로가 동반된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자신이 경험한 문화를 접한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로 적응할 때 심리적 갈등과 사회적 갈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연령, 교육수준, 국적 등 인구학적인 특성과 기존문화와 새로운 문화 차이에서 문화적응 유형과 경험 그리고 사회적 지지, 거주 국가의 태도 등의 사회적 특성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13].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는 주변으로부터 누구에게 어떤 지지와 어떤 지원을 지원받느냐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특성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환경으로부터의 지원, 누군가의 지지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은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기존문화와 중심문화를 수용하면서 유지를 포함한 문화적응 양상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인천시 ○○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얻어 편의표집 하였다. 참여자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이민자 중 ○○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며, 결혼생활 5년 이상 된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첫째, 한국 남성과 5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하는 여성 결혼이민자이며, 둘째, 한국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경험 등을 충분히 이야기할 만큼 현재 한국 문화 생활에 적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이며, 셋째, 자신이 경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의견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으며, 넷째, 인터뷰에서 진술한 자신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자로 선정하였다.

3.2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은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11.8년으로 대다수가 5년 이상 장기거주자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비교적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다. 참여자의 평균 결혼 기간은 1명을 제외하고 10년 이상으로 안정적 기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1명에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평균 1.8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자세한 특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o	①	②	③	④	⑤	⑥
1	41	Viet nam	12	2007	High school	husband, 2 children
2	40	China	13	2006	High school	husband, 1 children
3	33	Uzbekistan	13	2007	College	Parents-in-law, husband, 2 children
4	32	Viet nam	6	2013	College	husband, 2 children
5	39	China	15	2005	College attendance	husband, 2 children

① Age ② Nationality ③ Period of stay in Korea(years)
④ Marriage year ⑤ Education ⑥ Family living together

3.3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위해 2018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26일에 걸쳐 개별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개별 심층 인터뷰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장소와 시간을 물어 그들이 원하는 ○○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진행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내용을 녹음한 후 사실 그대로 전사하여 원자료를 구성했다.

3.4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다. 참여자의 선정과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연구 목적과 연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참여 동의서를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였다. 인터뷰하기 전에 녹취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소요되는 면담 시간과 연구자가 인터뷰를 직접 진행

하는 동안 참여자 동의하에 녹음을 고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면담 도중 불편하신 경우 면담을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모든 면담에 대해 녹취록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는 무기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가 끝나면 녹취록과 녹음파일은 폐기 처분되며 전사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참여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편안한 장소와 시간은 모두 연구 참여자가 정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정한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 인터뷰 20분 전에 가서 상담실에 난방과 따뜻한 차와 다과, 티슈 등을 준비하여 참여자가 도착하면 편안한 마음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말할때 마다 눈을 보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여 주고 눈시울이 느껴질 때는 손을 잡아주었다.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빠짐없이 있는 그대로 전사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가졌으며, 인터뷰가 끝난 후에는 소정의 사례금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3.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심 현상에 대한 공통적인 주제의 의미를 파악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 분석 기법 6단계를 활용하였다[14]. 1단계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었다. 2단계는 초기 코드 생성단계로 자료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코드화하였다. 3단계는 주제 찾기 단계로 잠정적인 주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한 결과, 28개의 잠정적인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4단계는 주제선정 단계로 주제가 코드화된 자료와 전체적인 자료에 적합한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8개의 잠정적인 소주제로부터 13개의 하위 주제, 최종적으로 3개의 중심주제가 도출되었다. 5단계에서는 각 주제의 자세한 부분을 다듬기 위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 명확한 정의를 생성하고, 각 주제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연구 자료)를 작성하였다.

3.6 질적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연구의 신뢰성, 전이성, 의존성, 확증성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였다[15].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와의 인터뷰 전에 연구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지도교수님과 학우들의 코멘트와 토론 등을 통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

자 노력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고 기술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발음이 아니거나 모호한 내용은 전화로 재확인하고 전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전사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인터뷰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인터뷰 전사 내용과 녹음파일을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인터뷰 현장에서 기록한 노트와 대조하여 참여자의 내용을 연구자가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였는지 전사내용 확인에 엄격성을 가졌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참여자도 순번으로 작성하여 파일 관리에 있어 기밀보완 유지에 힘썼으며,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선행연구를 찾아 대조하면서 연구 결과를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Table 3. Analysis Result : Subjects and Sub-topics

Subjects	Sub topics
Cultural differences experienced in Korean life	Cultural differences in everyday lifestyle
	Cultural differences in tradition
	Cultural differences in family relations
Cultural adaptation experience process	Difficulty and coldness of cultural adaptation
	Regret for recognition and discrimination
	Fear of country, appearance, and children's education
	Cultural adaptation efforts to overcome low self-esteem and loneliness
	Overcoming differences in Korean culture
	A shameless effort to have an identity in the home country and Korean culture
Cultural Adaptation Experience Definition	Familiarity in everyday life
	Accepting cultural differences
	Finding a way to live together
	Familiarity due to the government's multicultural support project

4.1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는 문화 차이

4.1.1 일상적인 생활방식의 문화 차이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 문화생활 중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적 소통이나 의사소통으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언어의 장벽이었다. 또한 음식의 조리 방법과 보관 등 생활방식의 차이로 적응하는데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에서 참여자들은 일반적 생활 소통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자신의 모국어 구조가 다른 한국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어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처음 왔을 때 다들 그럴 거예요. 한국 사람들 만나거나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처음 어려웠어요.”(참여자 1) “제가 뭘 이야기할 때, 선생님은 다문화 사람들과 이야기 많이 하셨으니까 괜찮은데, 일반사람들은 네? 하면서 다시 물어봐요. 잘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사투리 쓰냐고 물어봐요. 외국사람이냐고 물어보고.”(참여자 3) “표현과 생각이 다르니까. 오해도 많이 사고. 한국친구들도 많이 못 사귀고 다른 사람이랑 더 친해지고 싶은데 말을 잘못하니까 어려워요.”(참여자 4)

“많이 달라요. 저희는 김치 없고 배추는 주로 볶아서 먹어요. 한국처럼 하지는 않아요.”(참여자 2) “베트남은 반찬을 오래 먹지 않아요. 한번 요리하고 한번 먹고 끝이에요. 한국은 김치 같은 것 만들고 냉장고에 넣고 계속 먹잖아요. 베트남은 김장 그런 것이 없어요.”(참여자 4) “문화도 조금 달라서 중국 사람 먹는 음식 싫어했어요. 신랑도 중국에서 이상한 음식 먹는다고 제가 좀 아프면 이상한 것 먹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속상하고 그랬는데 조금씩 저희 친척들도 접하고 하면서 다 그렇게 먹는구나 하면서 바뀌었어요.”(참여자 5)

4.1.2 전통성의 문화 차이

여성 결혼이민자는 한국 가족문화에서 가부장적, 효 사상, 생신 문화, 제사 문화, 장례문화, 남아선호사상 등 전통성의 문화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것, 남편의 시댁 가족을 위해서 가사 일들을 전담해야 하는 문화적 당혹스러움을 경험하였다.

“저는 베트남에 있을 때, 생신 같은 것을 안 챙겼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큰아들이 무조건 제사를 지내거나 하지는 않아요. 엄마와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 제사를 지내요. 대부분 막내가 제사를 지내요.”(참여자 1) “한국의 시어머님들 자기 방법대로 따라야 돼요. 내 방법도 있잖아요. 인테리어도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어머님 마음대로 했어요. 결혼식 때 드레스도 제가 고르지 못하고 좀 그랬어요. 전통문화 형식으로 하고. 우리 시댁은 조선 시대에서 나온 것 같아요. 문화를 꼭 지켜야 해요.”

(참여자 3)

“제 친정아버지 장례식을 베트남에서 치르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님이 우리 집은 왜 안 오냐고, 근데 그때는 제가 한국에 돌아온 첫날이어서 조금 힘들고 해서 많이 안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장례식가서 조의금을 내면 잘 치렀다고 인사를 돌리잖아요. 베트남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조의금 받고 그쪽 가족분들 중에 돌아가시면 가고 그래요. 장례식에서 바로 말하고 끝나요.”(참여자 4)

4.1.3 가족관계의 문화 차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통해 가족으로 형성된 관계를 보면서, 자식이 결혼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간섭하는 가족의 친밀성을 보며 이질감을 느꼈다. 더불어 참여자들을 여성으로 인정하기보다 시부모 말에 무조건 따르고 집안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는 며느리의 역할로 부담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게다가 가사분담, 자녀교육에 있어서 남편은 관여하지 않으며, 자녀교육은 엄마가 도맡아야 한다는 역할에서도 불만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모든 걸 엄마(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다 네, 네 하고 하더라구요. 저는 솔직히 놀라웠어요. 엄마가 의견을 보낼 수도 있지만 결정 같은 것은 본인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갈등 생겼어요..”(참여자 1)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건 남편이 40살 넘었는데 아예 엄마가 다 챙겨줘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참여자 1)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나가서 돈 벌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님이 눈치 많이 주셔요. 뭐 사면 비싸다고 막 그러시고.”(참여자 4) “처음에 아이 문제 때문에 남편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밖에서 배우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못 나가잖아요. 또 저는 한국어를 배우도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아기는 어린이집 가서 사회생활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저는 나름대로 한국어를 배우려는데 신랑이 많이 반대했어요. 아기가 학교 가기 전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참여자 5)

4.2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경험 과정

모국문화에 익숙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생활의 정착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업

으로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과정, 즉 문화적응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4.2.1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차가움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처음 한국문화를 접하면서 모든 것들이 생소하고 무엇보다 한국인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소통과 한국 음식들이 안 맞아 한국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힘들었고 바라보는 시선에서 차가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 사람이랑 통화하는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생활하는데 한국어가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말부터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1) “엄청 매운 것과 회나 육회 아예 못 먹어요. 김치는 먹어요. 저희들은 김치는 흰 김치로 먹어요. 음식도 여기는 밥 먹어야 해요. 외국사람들은 밥 대신 빵도 먹어요. 우즈베크에서는 주부들은 일찍 안 일어나요. 거기서는 밥 안차려줘도 돼요. 간단하게 빵 같은 것 먹고 가요. 차 문화가 있어서 차에 간단하게 먹고 가요.”(참여자 3) “오리 목만 파는 것도 있고, 채소들 한국에 없는 것들은 신랑이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강남콩도 한국은 속에 것만 먹는데 중국은 껍질도 연하게 볶아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남편이 처음에 왜 껍질까지 먹느냐고 했는데 라디오에서도 듣고 이거 몸에도 좋다면서 다 잘 먹어요. 요즘은 아이들한테도 권해요.”(참여자 5)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그리고 첫 아이 임신하면서 음식이 안 맞더라구요. 처음에는 잘 먹었는데 입맛이 변해서 고향 음식 먹고 싶고, 여기 없는 과일 먹고 싶고 중국 가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왜 내가 여기 왜 왔지?하는 생각도 들고.”(참여자 5)

4.2.2 인정과 차별에 대한 서운함

처음 한국문화를 접한 환경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힘들게 만든 상황은 여성 결혼이민자라고 불리는 자신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도 약자로서 어떤 차별이나 편견, 따돌림, 거부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데, 말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 어디 사람이지 이래요. 모르는 사람은 바로 물어봐요.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할머니들은 다른 나라 잘 모르시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라고 물어보시고. 지금 러시아 친구들 많이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기들이 한국 사람이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차별 많이 느낀다고 해요. 학교에서 폭력도 많이 당하고..(참여자 3) “시어머니가 베트남사람이라 돈 때문에 결혼하냐고 하신 적도 있으세요. 베트남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한국에 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니까. 저는 차별 받은 게 시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아요..(참여자 4) “다문화라는 단어가 거부감이 있었고 자꾸 밀어내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집단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소외감을 느꼈어요. 같은 한국 사람으로 보기보단 약자로 보는 느낌이니깐 그게 속상했어요.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 분들에 대한 명칭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혜택도 받고 하니까..(참여자 5)

4.2.3 국가와 생김새, 자녀교육에 대한 두려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시키고자 부모로서 노력하고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한국 가정의 아이들과 어울리도록 먼저 인사 나누기, 집에 친구를 초청하여 함께 어울리는 등 쉽게 적응토록 노력하였다.

“학교에는 차별 있어요. 한국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놀아요. 다문화 아이들은 엄마끼리 지내는 것이 아니면 애들끼리 지내기가 힘들어요. 막내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른 엄마들을 몰라서 친구가 없어요. 그냥 어린이집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요. 친구들 부르고 싶어도 그 아기 엄마들을 몰라서 서로 인사만 하는 관계라 초대하지 못해요. 학교가도 똑 같아요. 엄마들이 친해야 애들이 친해질 수 있는데..(참여자 3) “친구들은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차별 많이 느낀다고 해요. 학교에서 폭력도 많이 당하고 학용품도 뺏기고..(참여자 5)

4.2.4 낮은 자존감과 외로움을 극복하는 문화적응

여성 결혼이민자는 서서히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등의 관공서와 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였다. 또한 지역 부녀회 활동, 지역사회를 통한 안정

적 직장, 지역사회 소속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친밀감 있게 인정받고자 노력하였다.

“부모님 맘에 들도록, 네 노력했죠.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안 하면 못사니까. 혼자 있는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하니까.. 내 편 드는 사람이 없는 것?.” “애들 아빠는 자기 일만 하고 학원, 어린이집 이런 것은 제가 다 알아봐요. 엄마들 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많이 알아보죠. 저는 부녀회도 하고 있어요. 같이 놀면 재밌어요. 거기 나가면 단지 내에서 장사도 하고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놀러 다니고 하는거죠.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쌀 것들 공동구매하고 그런게 좋죠. 그리고 나이가 저보다 많으시니까. 많이 챙겨주세요..(참여자 1) “친구 있어요. 남편이나 시부모님하고 싸우고 나서 말하고 싶을 때 한 명 있어요..(참여자 4) “남편이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지금 52세인데, 만약에 퇴직하면 아이가 중학생인데 제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안정한 직장 찾아야 된다는 고민을 좀 해요..(참여자 5)

4.2.5 한국문화 차이 극복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생활을 수년간 함으로써 그동안 문화적응에 힘들었지만 자녀가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즈음에 한국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이제는 힘든 상황이 있어도 모국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해결하면서 가족과 잘 어울리는 방법 등을 찾게 되는 단계가 되었다.

“남편은 누나 1명, 남동생 1명 여동생 2명 해서 2남 3녀로 5남매예요. 남편이 큰아들이예요. 저는 시누이한테 언니라 하거든요. 언니가 항상 제 편 들었어요. 저는 어머니라 불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일부로 엄마라고 했어요. 왜냐면 조금 가까워지려고. 시댁이랑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명절 때 어머니가 아들 먼저 챙기는 거 보고 동서랑 둘이 서로 보고 웃기만 했어요.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정엄마한테 내가 힘들다고 말할 못해요. 알려 주고 싶지도 않고. 엄마 속만 상하시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참여자 1) “저는 애들 재워놓고 남편한테 한참 하소연하죠. 저는 술은 안 먹어요. 남편은 술 좋아해요. 그냥 계속 말하면서 풀어요. 남편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방통대는 졸업하기 어렵다

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포기하는 사람 많다고 차라리 2년제 전문대 가는 것은 어떠냐고 이야기해요. 솔직히 저는 남편한테 많이 의존해요.”(참여자 2)

4.2.6 모국과 한국문화 정체성을 갖기 위한 뻔뻔한 노력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모국문화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한국인의 정체성에 갖고자 더욱 더 두 나라의 문화 차이 등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로서 무조건 가족생활에 맞추기보다 엄마의 문화, 아내의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문화 차이의 한계를 스스로 해결하고 발전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딱내 아가씨 남편이 저희 남편보다 나이가 많아요. 우리 남편한테 형님이라 해야 하는데 처남이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형님이잖아요. 어머님한테 이야기 드렸더니 아버지 계셨을 때 호칭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베트남에서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자기가 나이가 많으면 언니 하잖아요. 우리 딸도 아가씨네 딸이 언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베트남에서는 만약에 형님 딸이면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형님이라 해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해요.”(참여자 1)
 “올해는 중국 다녀왔었어요. 방통대 중국학과였어요. 전공은 좀 괜찮지만 교양과목 때문에 완전 힘들었어요. 시험마다 방해받지 않게 혼자 공부하고 그랬어요.”(참여자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적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많이 참가했어요.”(참여자 3)
 “저는 1년에 한 번만 가요. 비행기 표도 비싸고 많이 가면 시댁에서도 돈 많이 썼냐고 뭐라 하고 그래요.”(참여자 4)

4.3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경험 정의

문화적응은 한 문화권에 개인과 집단이 근원이 다른 문화권과 상호 교류함으로써 야기되는 문화적 변화를 말한다[16]. 다음은 두 문화 간의 충돌과 동요로 발생 되는 한국문화 환경속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을 경험적으로 정의하였다.

4.3.1 일상생활에 익숙해짐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문화적응이란 한국 생활에서 언어소통, 음식문화, 전통적인 풍습 등 한국의 생활방식들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 가는 것이었다. 즉 익숙함

이었다.

“저는 이제 베트남 음식을 잘 못 먹겠어요. 못 먹는 것은 아님데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맛있게 먹지는 않아요. 저는 집에서 베트남 음식 한 적이 없어요. 식당 찾아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저는 추어탕 같은 것도 좋아하고 부대찌개, 그냥 김밥 이런거 좋아해요.”(참여자 1)
 “처음에는 남편이 중국어랑 영어랑 한국어가 다되니까 그렇게 소통했고. 저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이제 소통 잘하죠. 지금 와서 보면 사랑으로 생각해요.”(참여자 2)

4.3.2 문화적 차이의 수용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문화적응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거부감과 불편함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문화적응에서 이런 차이들을 모국문화와 한국문화를 비판하기보다 이해하고 생활방식에서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남편한테 명절음식을 나눠서 해서 가져가는 건 어떨냐고 말했어요. 제가 전 부쳐서 가져가고 나물은 시누네서 해서 가고 과일은 아가씨들이 사 오고 하면 되거든요. 나중에 어머님 안 계시면 저희 집에서 하던가 시골에서 하던지 정하는 게 어떨냐고... 공식적으로 식구한테 이야기는 안 했는데 아마 이번 설날에 이야기할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도 많이 했어서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물론 아가씨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게 있고 할 텐데 저는 화목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희생을 한다 생각하면 못하죠.”(참여자 1)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사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일년에 한두 번만 가서 설거지하면 되니까.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다 이민자예요 문화가 뭐가 각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가 문화를 바꾸려 하거나 문화만 탓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순응해야지. 나는 여기서 사니까 이곳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중국 가면 당연히 중국문화를 따르겠죠.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참여자 2)

4.3.3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알게 됨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 차이를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한국인들과 함께 하는 방법을 터득해나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한국 사

회의 소속인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마 중국에서 왔어 하나까 깜작 놀랐어요.(참여자 5)

“제가 봤을 때, 한국어가 많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조금 빨리 배우는게 적음 빨리하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TV 많이 봤어요. 글은 모르지만 말을 먼저 배웠어요. 한 2년 반 있다가 글을 배운 거 같아요..”(참여자 1) “4급부터 취직이 돼요. 그런데 능력 시험은 대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하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외국 사람한테는 어휘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딜 가든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고 와야 하나까. 저는 3급까지 우리나라(한국)에서 땀어요.”(참여자 3) “아이를 12시 끝나고 데리러 갔었는데 제가 먼저 말을 안 걸면 다른 엄마들도 말을 안 해요. 식사 몇 번 사주고 아이 생일파티가면 다 챙겨주면서 엄청 힘들게 친해졌어요. 그래도 밑에 사는 아이와 가깝게 사니까 친해졌어요.”(참여자 3) “사이버 대학교 중국어학과 다니고 있어요. 검정고시는 한국에서 봤어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서 저도 한국어도 배우고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도 밟아서 6~7년 정도 해왔고요. 다른 현장에서도 근무했지만, 그때는 단기로 했었는데, 올해 3월부터 정식으로 여기서 통번역 지원사로 일하게 되었고요.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다문화 강사 양성과정을 받으면서 내가 담당해야 아이들도 담당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아이들 학교 가서 학부모 총회 같은데서 먼저 이야기해요.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좋은 사람들은 만나고 그러면 되니까요”(참여자 5)

4.3.4 정부의 다문화 지원사업으로 친숙해짐

한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에서의 교육, 정치, 역사 등을 배우고 참여함으로써 한국문화 생활에 친숙함과 편리함을 느끼게 되었다.

“정부지원 센터에서,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경인교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했었어요. 한국어 교육이랑 정치, 역사, 경제 전반적으로 다 배워요. 쪽 하는 건데 전 1년 동안 했어요.”(참여자4) “중국에서 중학교를 끝내고 경찰학교를 갔는데 그게 정식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서 한이 되고, 그래서 한국 와서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다문화센터에서 검정고시를 보게 해줬어요.”(참여자 5) “저희 아이는 저도 이렇게 일도 하고 지원받아 다문화강사하면서 봤었는데 아이들이 당당하게 우리 업

5. 결론

본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여 한국 생활의 적응과정에서 경험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한국문화 속으로 접하였는지, 동시에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문화적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생활방식, 한국이 갖고 있는 전통성, 가족 간의 역할과 관계 등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하였다[16, 17]. 그리고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모국문화와 한국문화가 단순 차이로 다르다는 것보다 한국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있어 외로움, 편견으로 인한 서운함, 당황스러움,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속상함과 거부감, 자신을 제외하고 가족들 간에 서로 챙겨줌, 이웃들이 바라보는 선입감 등이 나타났다.

문화적응 경험 과정 분석에서 첫째,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낯설음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한국어의 능숙하지 못한 서투름, 자신을 대하는 선입감이 한국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서투러 불편한 느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차별화하려는 편견에서 처음 직면에서부터 결혼한 가족임에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식이다. 셋째, 국가와 생김새로 인한 학교생활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났다. 넷째, 한국문화에 익숙해지려고 무조건 시부모 말에 수긍하고 자녀에게도 한국어가 서투러 즉시 훈계하지 못하는 낮은 자존감과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적응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섯째, 한국문화 차이를 극복하려고 학부모 총회 참여와 함께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등 가족 간에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 등을 찾게 되는 단계가 되었다. 여섯째, 모국과 한국문화 정체성을 갖기 위한 땀땀한 노력으로 무조건 가족생활에 맞추기보다 엄마의 문화, 아내의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문화 차이의 한계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모국과 한국문화에서 나타나는 낯설고 다르다는 생활방식 차이를 알고 여성 결혼이민자 자신이 한국 사람들 속에서 함께 생활하려는 방법을 스스로 찾고자 함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생활에 있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문화를 습득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모국문화도 그들에게 중요한 만큼 모국문화와 통합하여 정체성도 살려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문화 다양성 가족통합프로그램 등)과 실천(다문화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심리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남편을 포함한 가족, 지역사회 자원 등을 통하여 자신 스스로가 문화적응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 마련과 그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응의 어려움과 편견 등을 이겨 내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는데 행복감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식 전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겪은 문화적응 경험에 있어 정서적, 심리적 측면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Berry(1997)에 의하면, 문화적 차이는 문화적응의 초기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인식 과정이지만 문화적인 차이로 문화충격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장기간 경험으로 이어진다면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16]. 그러므로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특히 결혼 초에 임신과 출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자존감 향상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인터뷰 대상이 소수라는 점과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문화적응 경험을 의미 있게 질적 분석을 하였다. 하지만 2회 인터뷰를 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는 한국의 가족생활, 지역 간에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정서적인 경험 내용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고 본다.

REFERENCES

- [1] M. K. Kim. (2008). *A Study on Cultural Sensitivity and Acceptance of Married Immigrant Women*. Women and Culture. Seoul : Amorepacific Research Foundation
- [2]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ecurity
<http://www.mois.go.kr/frt/a01/frtMain.do>
- [3] Immigration and Foreigners Policy Headquarters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2479/subview.do>
- [4] D. H. Seol. (2006). Families of Immigrant Marriage in Korea: Current Status and Policy.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Fall Conference*, 1-20.
- [5] H. M. Yoon. (2009). A study on Empowerment -based Social Welfare Practice for Families of Immigrant marriages. *The Korean Society of Social Welfare*, 61(4), 85-108.
- [6] H. Im. (2010). The Impact Factors on Mental Health Among Marriage Migrant Women. *Mental Health and Social Welfare*, 34(4), 189-221.
- [7] M. J. Lee. (2019).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on Female Immigrants, Marital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SeongNam.
- [8] S. D. Chung & H. J. Park. (201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ale to Measure Acculturation Stress of Parents-in-law Who Have a Foreign Daughter-in-law.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2), 319-336.
- [9] J. W. Berry.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10] K. W. Choi & J. A. Jung. (2006). *Theories and Techniques for Family Therapy*. Seoul: Book Publishing How.
- [11] J. A. Han. (2009). *Analyzing the School Adjustment Proc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yungsung University, Busan.
- [12] J. W. Berry, J. S. Phinney, D. L. Sam & P. Vedder.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 [13] O. K. Yang, M. K. Song & S. W. Lim. (2009). A study on Acculturation Stress of Internationally-married Female Migrant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14(4), 137-168.
- [14] V. Braun & V. Clarke.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 [15] Y S. Lincoln & E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16] J. W. Berry.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17] K. S. Han. (2006). Family Life, Conflict and Adapt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s.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39(1), 195-243.

박 길 순(Gil-Soon Park)

[초빙]



- 2009년 2월 :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9년 8월 :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박사수료)
- 관심분야 : 노인, 가족, 다문화, 아동, 여성 등
- E-Mail : parkgs3746@daum.net

이 은 아(Eun-A Lee)

[초빙]



- 2003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문학사)
- 2010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객원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등
- E-Mail : 364379@hanmail.net